

일본 문학자료 연구관 회상

10수년전의 일이다. 필리핀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일본국 대표자였던 사람이 소속해있던 기관 “일본문학자료연구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황무지였으며,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가 운영하던 데이터베이스가 최고인 줄 알고있던 때였다. 기억하건데 바로 이 연구관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일본 과학기술정보센터가 운영하던 데이터베이스와 규모가 비슷할 만큼 대규모였다. 문학자료의 정리를 위하여 이만한 투자를 하다니 필자로서는 우선 놀라울 수 밖에 없었다.

관장을 비롯하여 간부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으며, 점심시간에는 도시락까지 대접을 받았다. 점심후에 시스템을 구경하였고 시험적으로 정보검색을 하여 보았다.

“이 데이터베이스안에 몇건의 레코드가 들어있습니까?”

“지금현재 약 200만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조선에 관한 자료를 찾아 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이 시스템은 다이알로그 검색 방식 대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미 유선생께서는 여기에 익숙하시니까 그냥 키워드를 조선, 한국, 코리아 등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라고 키보드를 두들기며 설명을 한다.

“27만건이나 들어 있군요. 검색건수가 너무 많아서 무엇으로 제한을 해야겠는데 무엇으로 할까요?”

“두가지로 제한하지요.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있

는것만,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데이터로 좁혀 봐 주십시오.”

“그래도 12만건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걸 제목만 출력하면 얼마나 될가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마도 2미터높이는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100건의 제목만 출력시켜 주십시오.”

“그러지요.”

그래서 100건을 랜덤하게 뽑아서 출력시켰다. 그것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귀국해서 개인적으로 친한 서지학자에게 그 출력목록을 보여 주면서 물었다. 검색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자료 100건 가운데서 선생님이 이미 보신 것, 못보셨더라도 어디에 가면 있는지 등을 잘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걸 빌려 주십시오. 집에 가서 자료를 검토해 본 다음 며칠후에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달도 넘었을 것이다. 그분이 가져갔던 목록을 갖다 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었다.

“이것과 이것은 장서각에 있을 것이고 이것과 이것은 규장각에 있는 것을 본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어느분이 소장하고 있고...” 등 설명하여 주는데 불과 5-6건만이 국내에 있고 나머지는 한국에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관한 연구자료 100건중 한국에 있는 것이 불과 5-6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90%는 도대체 한국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한국학의 연구를 위해

서 일본에 유학을 가야 제대로 연구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믿는다. 이래도 문학자료의 데이터베이스는 돈별이가 안되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한창,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던날, 필자는 오사카에 있는 “일본민족학 박물관”에 세미나 발표를 위하여 출장중이었다. 필자는 한국학 연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일본 측에서는 “동국여지승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시범을 보여 주었다. 필자는 솔직히 말해서 “동국여지승람”이라는 고문헌을 한번도 구경조차 못했던터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차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일행들이 모두 놀라서 감탄을 하니 점점 자기들의 자량이 늘어났었다.

“내년도 문부성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승정원 일기를 입력할까 합니다.” 라고까지 기염을 토하는 것을 봤다. 앞선 연구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라는 회의감에 찼다. 가뜩이나 국내정세가 어수선한터라 내일을 모르고 내년은 더더욱 예측할수 없는 처지에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것인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수 있건 없건 “침이나 발라두자”는 식으로 조선일보 기사에서 상황설명을 자세히 했더니, “이조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라는 타이틀로 신문에 대서특필된 일이 있었다. 당시의 컴퓨터기술로서 한글과 한자를 처리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는 한자폰트를 겨우 3천자 정도 기억할수 있는 장치가 1대밖에 없었어 2만자종이나 동원하여야 할 “이조왕조실록”을 어떻게 입력하며 어떻게 해석해서 넣을 것인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포를 쏘아 올렸던 셈이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CD-ROM(왕조실록)이 만들어져서 시판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것을 만든 우리들의 후배들이 그

래도 그런걸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15년만에 후배들이 나의 공포탄을 실탄으로 만들어주어서 거짓말쟁이를 겨우 면하게 해주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이미 20년전부터 일본에서는 한국의 모든 귀중한 자료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한 역사는 겨우 2년, 이나마 모든 분야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전혀 착수조차 하지 않은 분야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자료를 외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는 일은 하나도 부끄러운 현실이 아니었다. 심지어 필자 8-9년전까지만 해도 부산의 해운대 비치호텔의 예약을 미국의 The Source라는 데이터뱅크를 통해서 의뢰한 일도 있었다. 서울에서 미국의 워싱턴DC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말이다.

너무 늦게 시작한 데이터베이스 축적이 빛보기 위하여 앞으로 20년은 더꾸준히 입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오늘날의 일본수준에 육박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혹시나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다시 돈들여서 만들고 있지 않는지도 세밀히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이용습관이 나름대로의 작은 문화를 형성한다. 바로 이러한 문화가 진정한 “정보문화”인 것이다. 한국적인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한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적절한 규격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온 국민은 이 규격에 맞게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바로 그것이 세계화가 아가 한다. 인터넷으로 외국의 정보소스를 확보하는 것만이 세계화가 아니다.

〈유경희, 한국정보유통센터 회장〉